

2026학년도 10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1교시 국어 영역 •

※ 본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6개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시행되며, 문제지는 EBSi에서만 제공됩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는 금지됩니다.

1	④	2	④	3	③	4	⑤	5	③
6	⑤	7	③	8	①	9	③	10	④
11	④	12	⑤	13	④	14	③	15	①
16	②	17	①	18	④	19	②	20	④
21	④	22	⑤	23	①	24	⑤	25	③
26	⑤	27	②	28	②	29	③	30	④
31	③	32	④	33	⑤	34	①	35	③
36	④	37	②	38	④	39	③	40	⑤
41	⑤	42	③	43	⑤	44	⑤	45	③

[화법 · 언어]

1. [출제의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3문단의 ‘담화 상황을 고려해 ~ 느껴지시나요?’에서 발표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고 있고, ‘(반응을 살피며) 네, 그렇다면 제가 ~ 것일 겁니다.’에서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며 상호 작용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 [출제의도] 발표 계획의 반영 여부 파악하기

4문단의 ‘우리는 자신보다 ~ 경향이 있습니다.’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문장 유형을 달리 선택하는 경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문장 유형을 잘못 사용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설명한 것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의 ‘지난 시간에 ~ 기억하시나요?’에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환기하고 있고, ‘오늘은 관계를 고려한 언어 표현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발표의 화제를 소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2문단의 ‘호칭이란 ~ 뜻하는데요’에서 호칭어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고, ‘그런데 동일한 ~ 달라질 수 있습니다.’에서 담화 상황에 따라 호칭어가 달라질 수 있음을 언급했으므로 적절하다. ③ 3문단의 ‘이때 우리는 ~ 달라질 수 있어요.’에서, 같은 상대방도 높임 표현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가 상대 높임을 사용할 때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5문단의 ‘관계를 고려해 ~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에서, 언어 공동체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의의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 [출제의도] 어휘와 문법 표현 이해하기

㉔은 수업 시간의 발표라는 공적 상황을 고려하여 ‘봐 주십시오’라고 하며 지위가 자신보다 높지 않은 상대인 친구들에게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㉔은 ‘앉으세요’라고 하며 지위가 자신보다 높지 않은 상대인 학생들에게 하십시오체가 아닌 해요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㉔에 사용된 호칭어인 ‘반장’과 ㉔에 사용된 호칭어인 ‘선생님’은 모두 명사로 실현된 호칭어이며, ㉔과 달리 ㉔의 ‘선생님’은 접미사인 ‘-님’이 높임의 뜻을 더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㉔과 ㉔은 모두 민지가 수민에게 하는 말이며, ㉔에서는 사적 상황을 고려하여 ‘맛있었어’의 종결 표현을 통해 해체를 사용한 반면, ㉔은 ‘있습니까’의 종결 표현에서 발표라는 공적 상황을 고려하여 하십시오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서로 다른 담화 상황에서 종결 표현이 다르게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㉔에 사용된 호칭어인 ‘학생들’은 명사이며 상대를 높여 이르고 있지 않지만, 이와 달리 ㉔은 상대를 높여 이

르는 대명사인 ‘여러분’을 호칭어로 사용하여 청중을 높여 이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㉔은 ‘있습니다’의 종결 표현에서, ㉔은 ‘있습니까’의 종결 표현에서 모두 하십시오체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㉔과 ㉔ 모두 격식체가 나타나고, 종결 표현이 실현하는 높임의 정도가 같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화법]

4. [출제의도] 사회자의 역할 이해하기

‘사회자’의 두 번째 발화에서 ‘오누이 전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전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와 ‘사회자’의 세 번째 발화에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와 같이 토의 참여자에게 질문하는 것은 용어의 개념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사회자’의 첫 번째 발화에서 ‘지난 토의에서는 ~ 증강현실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와 같이 말한 것은 지난 토의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 ‘사회자’의 첫 번째 발화에서 ‘오늘은 ~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라며 토의를 시작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사회자’의 마지막 발화에서 ‘오늘 토의 내용을 반영해 제가 동아리 활동 기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와 같이 말한 것은 토의 결과를 활용할 계획을 밝힌 것이고 ‘사회자’의 마지막 발화에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라고 토의를 마무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사회자’의 세 번째 발화에서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한 것은 ‘학생 3’의 의견에 감사를 표한 후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라며 토의를 이어가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학생 2’가 석탁에 얹힌 전설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자는 발언 내용과 관련해 ‘사회자’의 두 번째 발화에서 ‘그 전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와 같이 ‘학생 2’의 발언 내용에 대하여 질문한 것은 전설의 활용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5. [출제의도] 토의 내용 분석하기

[B]에서 ‘학생 1’은 ‘학생 2’가 ‘오누이 전설을 설명해 준 ~ 있을 것 같습니다’와 같이 발언한 내용을 ‘전설을 활용하여 ~ 생각에는 찬성합니다.’라고 상대의 의견에 동의한 것일 뿐, ‘학생 2’가 직전에 발언한 내용을 재진술한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A]에서 ‘학생 2’는 ‘학생 1’, ‘학생 3’이 제시한 석탁의 외형에 대한 정보로 증강현실 프로그램을 구성하자는 의견과는 다른 ‘석탁에 얹힌 전설을 활용하여 ~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A]에서 ‘학생 3’은 ‘동의합니다.’라고 ‘학생 1’의 의견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으며, ‘또한 석탁의 ~ 설명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B]에서 ‘학생 2’는 ‘아시다시피 △석탁에는 ~ 기반부에 남아 있습니다.’와 같이 토의 참여자들의 배경지식을 언급한 후 ‘먼저 학생들에게 ~ 몰입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B]에서 ‘학생 3’은 ‘학생 1’이 ‘다만 석탁의 외형에 대한 정보와 ~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시한 추가적인 논의 사항에 대해 ‘프로그램의 큰 흐름은 ~ 방식을 제안합니다.’라고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6.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파악하기

‘학생 2’가 제시한 ‘학생들은 흥미가 ~ 않을 수도 있습니다.’와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인다’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자료 3]에서 ‘퀴즈 게임’을 선택한 것은 [자료 1]에서 ‘교육 활동에 게임 방식을 ~ 유발할 수 있습니다.’와 ‘교육적 효과를 ~ 포함되어야 합니다’라는 전문가 인터뷰를 바

탕으로, [자료 3]에서 게임 방식을 도입한 퀴즈 게임이 학생들의 이해도를 확인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료 1]에서 ‘또한 게임에서 ~ 흥미를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라는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자료 2]에서 ‘성과에 따른 점수 부여 기능’ 요소도 활용하여 문제를 맞힌 개수에 따라 학생에게 보상을 제공해 주면 학생의 흥미도 지속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문법]

7. [출제의도] 시제와 동작상 이해하기

‘만든’에는 과거 시제를 실현하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나타났고, ‘먹는다며’에는 현재 시제를 실현하는 선어말 어미 ‘-는-’이 나타났으며 ‘웃고 있다’에는 진행상을 나타내는 ‘-고 있다’가 나타나 모든 조건이 실현되었으므로 적절하다.

① 현재 시제를 실현하는 선어말 어미와 과거 시제를 실현하는 관형사형 어미, 진행상이 모두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준비한’에는 과거 시제를 실현하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나타났고 ‘먹는다’에는 현재 시제를 실현하는 선어말 어미 ‘-는-’이 나타났지만, 진행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받은’에는 과거 시제를 실현하는 관형사형 어미 ‘-은’이 나타났고, ‘읽고 있다’에는 진행상이 나타났지만, 현재 시제를 실현하는 선어말 어미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드린’에는 과거 시제를 실현하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나타났고, ‘간다’에는 현재 시제를 실현하는 선어말 어미 ‘-ㄴ-’이 나타났지만, 진행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8. [출제의도] 음운 변동 이해하기

‘날날이[난:나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이 ‘ㄷ’으로 교체되고, 비음화가 일어나 ‘ㄷ’이 ‘ㄴ’앞에서 ‘ㄴ’으로 교체되며, 구개음화가 일어나 ‘ㅣ’ 앞의 ‘ㅌ’이 ‘ㄷ’으로 교체된다. 따라서 ‘교체’에 세 번 표시되어야 하는데 답변은 이와 다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웃맵시[온맷씨]’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ㅌ’이 ‘ㄷ’으로 교체되고, 비음화가 일어나 ‘ㄷ’이 ‘ㄹ’앞에서 ‘ㄴ’으로 교체되며,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ㅂ’ 뒤에서 ‘ㅌ’이 ‘ㅃ’으로 교체된다. 따라서 답변에서 ‘교체’에 세 번 표시된 것은 적절하다. ③ ‘호박엿[호:방넌]’은 합성어의 앞말 자음 뒤에 반모음 ‘ㅣ’가 결합하여 ‘ㄴ’첨가가 일어나 ‘ㄴ’이 첨가되고, 비음화가 일어나 ‘ㄱ’이 ‘ㄴ’앞에서 ‘ㅇ’으로 교체되며,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ㅌ’이 ‘ㄷ’으로 교체된다. 따라서 답변에서 ‘교체’에 두 번, ‘첨가’에 한 번 표시된 것은 적절하다. ④ ‘급행열차[그행넌차]’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ㅂ’과 ‘ㅎ’이 결합하여 ‘ㅃ’으로 축약되고, 합성어의 앞말 자음 뒤에 반모음 ‘ㅣ’가 결합하여 ‘ㄴ’첨가가 일어나 ‘ㄴ’이 첨가된다. 따라서 답변에서 ‘첨가’, ‘축약’에 한 번씩 표시된 것은 적절하다. ⑤ ‘넙죽하다[넙쭈카다]’는 자음군 단순화에 따라 ‘ㄷ’에서 ‘ㄱ’이 탈락하고,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ㅂ’ 뒤에서 ‘ㄷ’이 ‘ㅃ’으로 교체되며,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ㄱ’과 ‘ㅎ’이 결합하여 ‘ㄱ’으로 축약된다. 따라서 답변에서 ‘교체’, ‘탈락’, ‘축약’에 한 번씩 표시된 것은 적절하다.

9. [출제의도] 사이시옷 표기 조건 이해하기

‘해+빛’은 앞 단어 ‘해’가 받침 없이 모음으로 끝나며, 뒷말 ‘빛’의 첫소리 ‘ㅂ’이 된소리로 바뀌어 [해뵤/햐뵤]으로 발음되므로 ㉔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다. ‘제사+날’은 앞 단어 ‘제사’가 받침 없이 모음으로 끝나며, 뒷말 ‘날’의 첫소리 ‘ㄴ’앞에서 ‘ㄴ’소리가 덧나 [제:산날]로 발음되므로 ㉔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다. ‘깨+잎’은 앞 단어 ‘깨’가 받침 없이 모음으로 끝나며, 뒷말 ‘잎’의 첫소리가 모음이어서 그 앞

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 [켄닙]으로 발음되므로 ㉔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다.

① ‘존대+말’은 [존덴말]로 발음되어 뒷말의 첫소리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로 ㉔에 해당하는 예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이+몸’은 [인몸]으로 발음되어 뒷말의 첫소리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로 ㉔에 해당하는 예가 아니고, ‘나무+있’은 [나문닙]으로 발음되어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로 ㉔에 해당하는 예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만두+국’은 [만두꼭/만돌꼭]으로 발음되어 뒷말 ‘국’의 첫소리 ‘ㄱ’이 된소리로 나는 경우로 ㉔에 해당하는 예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고기+국’은 앞 단어 ‘고기’가 받침 없이 모음으로 끝나며, 뒷말 ‘국’의 첫소리 ‘ㄱ’이 된소리로 바뀌어 [고기꼭/고기꼭]으로 발음되는 경우로 ㉔에 해당하는 예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10.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특징 이해하기

‘사르미’는 체언의 ‘·’와 조사의 ‘-’가 모두 양성 모음으로 모음 조화가 지켜졌으므로 ㉔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다. ‘거르니’는 어간의 ‘ㄱ’와 어미의 ‘-’가 모두 음성 모음으로 모음 조화가 지켜졌으므로 ㉔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다.

① ‘불ㄴ니’는 어간의 ‘·’와 어미의 ‘·’가 모두 양성 모음으로 모음 조화가 지켜졌으나, 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홀글’은 체언의 ‘·’는 양성 모음이지만, 조사의 ‘-’는 음성 모음으로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은 예이므로 ㉔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③ ‘노흐니’는 어간의 ‘ㄴ’와 어미의 ‘·’가 모두 양성 모음으로 모음 조화가 지켜졌지만 ㉔에 해당하는 예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거부비’는 체언의 ‘ㄱ’와 조사의 ‘ㄱ’가 모두 음성 모음으로 모음 조화가 지켜졌지만 ㉔에 해당하는 예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과학]

[11 ~ 14] <출전> 김재휘, 「친환경 전기동력자동차」

11.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2문단의 ‘전동기에는 영구자석이 ~ 결합되어 있고’를 보면 영구자석이 부착되어 자동차 바퀴에 연결된 것은 회전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의 ‘자기장에서 힘이 ~ N극으로 향하는데’를 보면 자기력선의 방향에 따른 자석 내부의 자기장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1문단의 ‘다른 극성 사이에서는 ~ 인력이 발생한다’를 보면 두 자석의 다른 극성 사이의 자기력의 작용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2문단의 ‘영구자석 동기전동기는 ~ 전기 자동차의 핵심 장치이다.’를 보면 영구자석 동기전동기의 작동 원리를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2문단의 ‘이러한 슬롯을 ~ 전선 다발로 감겨 있다.’를 보면 전선 다발이 감겨 있는 고정자 안쪽 슬롯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2. [출제의도] 핵심 내용 파악하기

5문단의 ‘제어 시스템은 영구자석에 ~ 전류를 제어한다’를 보면 영구자석의 N극과 전자석의 S극이 같은 방향에 놓이도록 전류를 제어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3문단의 ‘자동차가 가속 신호를 ~ 전선 다발에 흘려보낸다.’를 보면 제어 시스템이 가속 신호를 받아 전동기 내부의 고정자 특정 구역의 전선 다발로 전류를 흘려보내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4문단의 ‘제어 시스템은 배터리의 전류를 ~ 시간차를 두고 공급한다’를 보면 제어 시스템이 배터리의 전류

를 교류로 변환하여 전동기 내부의 고정자로 공급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2문단의 ‘자동차의 제어 시스템은 ~ 전동기를 구동한다’를 보면 제어 시스템이 전자석 형성 과정과 회전력 제어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회전력 제어 과정을 설명하는 4문단의 ‘일정한 주기로 각 구역에 ~ 효과가 나타난다’를 보면 자기장들의 상호 작용으로 마치 하나의 전자석이 회전하는 효과가 나타나려면 자기장들의 방향과 세기가 순차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어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 반대로 바뀐다.’를 보면 제어 시스템이 전류의 방향을 제어하는 것을, ‘특정 구역에 흐르는 ~ 시간차를 조절하는데’를 보면 제어 시스템이 전류의 세기를 제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전자석이 회전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도록 제어 시스템이 전류를 제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3. [출제의도] 세부 내용 추론하기

5문단에서 ‘회전자가 빠르게 회전’하면 ‘영구자석의 자기장에 의해 고정자의 자기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안정된 자기장을 유지하려는 관성으로 발생하는 역기전력이 커지’면서 ‘전동기의 회전 속도에 제한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극복하려고 제어 시스템은 ‘고정자 내부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어 ‘영구자석의 자기장 에너지와 전자석의 자기장 에너지가 상쇄’되도록 전류를 제어하는데, 이때 전자석의 자기장 에너지에 의해 영구자석의 자기장 에너지가 감소한다. 이로 인해 영구자석의 자기장의 영향이 줄어들어 불안정해진 고정자의 자기장이 안정되면서 전동기의 회전 속도를 제한하는 역기전력의 크기도 감소하게 되므로 적절하다.

14. [출제의도] 세부 내용 적용하기

(가)에서 t_2 를 보면 A-a 구역 쌍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음(-)의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문단을 보면 ‘제어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전류의 방향을 바’꾼다고 하였으므로 회전 방향이 반대인 나머지 B-b, C-c 구역 쌍의 자기장들에 의해 A-a 구역 쌍의 전류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t_0 을 보면 A-a 구역 쌍의 전류의 세기는 0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문단에서 전자석은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성을 띠는’ 것을, 3문단에서 고정자 표면의 전자석은 ‘고정자의 특정 구역에 전류가 흘러 만들어진 자기장들의 상호 작용으로’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정자 표면의 전자석은 A-a 구역 쌍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 쌍에서 형성된 자기장만을 통해 만들어지므로 적절하다. ② (가)의 t_1 과 t_3 을 보면 각 구역의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지만 두 시점 모두 A-a 구역 쌍의 전류의 세기가 가장 세고 B-b, C-c 구역 쌍의 전류의 세기는 그 절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문단을 보면 제어 시스템이 ‘특정 구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가장 강할 때 나머지 두 구역의 전류의 세기는 각각 그 절반이 되도록 시간차를 조절’하여 ‘고정자에 흐르는 전체 전자석의 자기장 세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가)의 t_3 을 보면 A-a 구역은 음(-)의 방향, B-b, C-c 구역은 양(+)의 방향이므로 (나)에서 A 구역의 전류는 고정자로 들어가는 방향, B, C 구역은 고정자에서 나오는 방향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4문단을 보면 제어 시스템은 ‘회전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얻기 위해’서 ‘회전하는 영구자석의 N극 위치를 산출’하여 ‘영구자석의 N극이 회전하는 방향의 90도 앞선 위치에 전자석의 S극을’, ‘동시에 뒤쪽에는 전자석의 N극을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자석의 N극이

(나)의 a 구역으로부터 90도 앞선 위치에 형성되었다면 회전하는 영구자석의 N극은 전자석의 N극보다 90도 앞선 A 구역을 향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가)에서 A-a 구역 쌍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0인 지점은 t_0 , t_2 , t_4 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각 지점의 B-b, C-c 구역 쌍을 보면 t_0 일 때 B-b 구역은 음(-)의 방향, C-c 구역은 양(+)의 방향이고, t_2 일 때 B-b 구역은 양(+)의 방향, C-c 구역은 음(-)의 방향이며, t_4 일 때 B-b 구역은 다시 음(-)의 방향, C-c 구역은 양(+)의 방향이 되므로 A-a 구역에 전류가 흐르는 한 주기 동안 고정자 표면의 전자석의 N극이 시계 방향으로 t_0 에서 A 구역을 향했다가 t_2 에서 a 구역을 지나 다시 t_4 에서 A 구역으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4문단에서 ‘회전력 제어 과정’은 ‘전자석의 자기력과 회전자 내 영구자석의 자기력으로 바퀴의 회전력을 조절하는 과정’인데 고정자 표면의 전자석에 의해 회전자 내 영구자석이 회전하면서 생긴 회전력이 ‘바퀴에 최대한의 동력을 전달’하므로 회전자 내 영구자석의 회전이 바퀴에 회전력을 전달했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인문]

[15 ~ 17] <출전> 한나 아렌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15.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5문단에서 ‘아렌트는 심각한 악을 ~ 무사유를 극복하기 위해 확장된 사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확장된 사유는 ~ 도덕적 상상력’이며, 이것은 ‘맹목적 공감’이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아렌트가 타자에 대한 맹목적 공감을 지향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5문단에서 ‘아렌트에 의하면 타자는 저마다 서로 다른 삶의 이야기를 지닌 존재’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2문단에서 ‘아렌트는 제2차 세계 대전 전범의 재판을 분석하며 ~ 이를 ‘악의 평범성’이라 개념화했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1문단에서 칸트가 인간을 ‘자연적 욕구에 이끌리는 감성적 존재’이면서 ~ 보편적인 도덕법칙을 인식하여 그에 따를 수 있는 이성적 존재’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1문단에서 칸트가 ‘인간에게는 도덕법칙보다 자신의 욕망을 우선시하려는 성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도덕법칙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성향으로부터 악이 발생한다고 보고, 그 근본적 성향을 ‘근본악’이라’고 명명하였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16.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보기>의 ‘결과’에서 ‘B’가 ‘실험 참여를 중단’한 것은 ‘확장된 사유’가 이루어진 것이다. 5문단에서 이러한 확장된 사유는 ‘타자의 관점에서 이 세계가 어떻게 보일지를 이성적으로 추론하는 도덕적 상상력’이라 하였고, 3문단에서 ‘인식이 지성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활동’이며 ‘법과 규칙을 인식한 전문가라도 사유를 중단하면 무사유에 빠질 수 있으며, 이것이 타자의 관점에서 상상하는 능력의 부재로까지 이어지면 심각한 악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이는 지성을 통한 지식의 습득으로는 확장된 사유를 이룰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보기>의 조건에서 ‘연구원 A’가 ‘전기 충격을 가하라는 말 대신 ‘진행하십시오.’라는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는 4문단의 ‘상투어’에 해당하는 것이다. 아렌트는 ‘행위자가 조직 내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상투어에 익숙해져 이를 어떠한 상황에서나 쓰게 되면, 그 상투어가 가리키는 행위가 지닌 본질이 은폐된다고 보았으므로 적절하다. ③ <보기>에서 B가 ‘D가 받을 고통을 상상’한 것은

5문단에서 ‘타자의 관점에서 세계를 상상’한 것에 해당하고, <보기>에서 ‘실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함으로써 자신의 행위를 판단한 것은 확장된 사유 능력이 발현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보기>에서 C가 자신이 맡은 임무에 충실하였다고 하며 ‘가장 센 전압까지 버튼을 누’른 것은 4문단에서 ‘행위자가 자신이 맡은 특정 임무에만 몰두’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행위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가 지닌 의미나 그 임무의 결과가 초래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그 임무를 단순히 행정적 절차 중의 하나로 생각’하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보기>에서 C가 ‘D의 고통에는 책임이 없’다고 말한 것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기>에서 C가 ‘모든 업무가 철저히 위계화되어 있었고’, ‘A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했는데, 이는 C가 4문단에서 말한 ‘권위자의 지시나 행정 논리’가 있는 ‘위계적으로 구조화된 조직’ 속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C는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권위자의 지시나 행정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으므로 적절하다.

17. [출제의도] 다양한 관점 비교하기

<보기>는 ‘타자’가 ‘나보다 우위에 있는 존재’라고 하였다. 이와 달리 5문단에서는 아렌트가 타자를 ‘나와 대등한 관계에서 세계를 구성하는 존재’로 보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가 아렌트와 달리 타자와의 관계를 타자 우위의 관계로 본다는 것은 적절하다.

[사회]

[18 ~ 23] <출전> 곡윤직 외, 「민법총칙」

정찬형, 「상법강의」

18.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가)의 1문단에서 ‘대리’ 제도와 관련하여 ‘대리’의 개념을 ‘다른 사람이 자신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는 자신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제도’라고 제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가) 2문단에서 ‘현명’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본인을 위해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가)의 3문단에서 ‘자기계약’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 법률행위를 하면서 동시에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나)의 1문단에서 ‘보조상에 관한 제도’와 관련하여 ‘보조상’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다른 상인의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상인’이라고, (나) 3문단에서 ‘자기 명의로써’라는 용어의 개념을 ‘위탁매매인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 직접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뜻’이라고 제시하며 특정 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9.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가)의 1문단에서 ‘임의대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리권을 수여’한다고 하였고, 2문단에서 ‘임의대리에서는 ~수권행위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한다.’고 하였으므로 임의대리의 대리권이 법률 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여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1문단에서 ‘자신이 직접 법률행위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상생활의 법률행위가 ~사적 자치를 확장하거나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가)의 3문단에서 ‘대리는 본인과 대리인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하며, ‘대리인은 본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가)의 3문단에서 ‘대리인은 단순히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의사표시를 하는 주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가)의 3문단에서 ‘쌍방대리는 하나

의 법률행위에서 ~대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0. [출제의도] 세부 내용 추론하기

(가)의 3문단에서 ‘자기계약’은 ‘대리인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여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하였고, ‘쌍방대리’는 ‘양측 당사자 모두가 이익을 충분히 보호받지는 못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하였다. ‘이미 정해진 채무를 그대로 갚아 나가면 되는 상황 등’과 같이 ‘기존의 의무를 실현하는 것에 가까울’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조건을 정하거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경우’처럼 본인의 이익이 침해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보다 본인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1.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나)의 4문단에서 상법은 ‘보조상의 영업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도 다양한 권리를 인정’하며, 그 권리로 ‘위탁매매인에게는 객관적인 거래소 시세가 ~개입권이 인정’된다고 한 부분에서 개입권은 위탁자가 아니라 위탁매매인을 보호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나)의 1문단에서 ‘상법에서는 다른 상인의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상인인 보조상에 관한 제도를 규정하여 상거래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도모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나)의 1문단에서 ‘보조상의 대표적 예’인 ‘대리상과 위탁매매인’은 ‘모두 독립된 상인’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나)의 4문단에서 ‘보조상의 영업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도 다양한 권리를 인정한다’고 하였고, ‘대리상과 위탁매매인은 ~물건 등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유치권을 가진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나)의 3문단에서 ‘위탁매매인이 행한 거래로 발생한 채무를 상대방이 갚지 않’아 위탁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인이 위탁자에게 해당 채무를 갚아야 할 책임을’ 진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2. [출제의도]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나)의 3문단에서 ‘위탁매매인은 자기 명의로써 ~독립된 상인’이라고 하였으므로, 원자재 매입 전문 상인인 을이 제조업체 B의 의뢰를 받아 자기 명의로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을은 위탁자인 B의 위탁매매인임을 알 수 있다. <보기>에서 B가 을에게 구리 매매를 의뢰할 때 제시한 가격은 톤당 최대 1,500만 원이며, 갑과 을이 체결한 구리 매매 계약에서 협의한 가격은 톤당 1,480만 원인 것으로 보아, 갑과 B의 위탁매매인인 을의 매매에서 이익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나)의 3문단에서 ‘위탁매매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익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고 하였으므로 갑과 을의 매매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은 을이 아니라 B에게 귀속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① (나)의 2문단에서 대리상은 ‘본인의 명의로써 의사표시를 하’므로 <보기>에서 갑이 A의 명의로써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갑은 본인인 A의 대리상임을 알 수 있다. ‘대리상은 본인을 위하여 ~지체없이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대리상인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그 내용을 본인인 A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② (가)의 1문단에서 ‘대리는 매매 계약 체결’ 등에서 ‘법률행위가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고 하였고, 2문단에서 ‘대리인이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키는 법률상의 자격’인 ‘대리권’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나)의 2문단에서 ‘다른 상인을 위해 계약을 대

신 체결하는 대리상’은 ‘본인의 명의로써 의사표시를 하고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된다’고 하였으므로 대리상인 갑은 본인인 A의 수권행위에 의해 발생한 자격인 대리권을 가지고 A를 대신해서 5년간 구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③ (가)의 2문단에서 ‘대리인은 상대방에게 ~‘현명’을 하여야’ 하고, ‘이는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 상대방이 알 수 있게 한다’고 하였으므로 갑의 현명으로 인해 을은 갑이 A의 대리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④ (나)의 4문단에서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의 거래가 증가하고 ~보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였으므로, <보기>에서 갑의 활동으로, A의 고객이 된 을과 A의 거래가 증가했으며, 갑과 A의 계약 종료 후에도 을과의 거래로 A가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갑은 일정 기간 내에 자신의 활동에 대한 기여에 따라 A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23. [출제의도] 어휘의 의미 파악하기

‘모든 영업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데에 비용과 위험 부담이 따를 수 있다’에서 ㉠ ‘따를’의 문맥상 의미는 ‘어떤 일이 다른 일과 더불어 일어난다.’의 의미이므로, 이와 가장 가까운 것은 ‘이 일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에서의 ‘따를’이다.

② ‘선생님의 권유에 따라 공부를 시작하였다.’의 ‘따라’는 ‘관례, 유행이나 명령, 의견 따위를 그대로 실행하다.’의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우리나라는 계절에 따라 다양한 꽃이 핀다.’의 ‘따라’는 ‘어떤 경우, 사실이나 기준 따위에 의거하다.’의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머리 좋기로는 내 친구를 따를 사람이 없다.’의 ‘따를’은 ‘앞선 것을 좇아 같은 수준에 이르다.’의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우리 집 강아지는 할아버지를 유난히 따른다.’의 ‘따른다’는 ‘좋아하거나 존경하여 가까이 좇다.’의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독서 · 작문]

[24 ~ 27] <출전> 오승종, 「저작권법 강의」

이상돈 외, 「정의의 아포리아와
형의 유예제도에
대한 법문학적 이해」

24.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나)의 1문단과 2문단에서 아포리아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와 그 의미 등은 확인할 수 있으나 (나)에서 아포리아의 상황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3문단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호받지 못한’ 상황을 제시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것이 저작권이다.’라고 한 것에서 저작권이 필요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가)의 2문단에서 ‘저작권을 뒷받침하는 이론’에 ‘자연권 이론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나)의 1문단에서 ‘아포리아는 단순히 혼란스러운 상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것과 ‘기존의 기준이나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게 한다’는 것에서 아포리아의 상황이 가지는 긍정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나)의 2문단에서 ‘현대 과학과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기존의 기준만으로 사회적 합의와 법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를 양산하게 되었다’라고 한 것을 통해 현대 과학과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5.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의 반영 여부 확인하기

(다)의 3문단에서 전문가의 말은 인용하고 있으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예술품에 인간과 비교할 만큼의 창의성이 없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다)의 1문단에서 ‘최근 인공지능은 ~ 예술 창작 분야의 생태계를 바꾸고 있다.’라며 최근 사회의 변화를 제시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예술품에도 저작권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라고 한 것에서 글에서 다루는 내용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다)의 5문단에서 ‘따라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예술품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자신이 선택한 관점에 따른 주장을 분명하게 드러냈으므로 적절하다. ④ (다)의 2문단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예술품의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의 사람들은 그것이 기술 개발과 문화 발전을 장려할 수 있다고 본다.’라며 자신과는 다른 관점도 함께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다)의 3문단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예술품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자신과는 다른 관점에 대해 ‘정보의 대량 생산과 무한 복제가 가능한 현대 사회의 특성상 ~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라며 이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한 것에서 자신과는 다른 관점이 가지는 문제점을 비판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6. [출제의도] 읽기 방법 파악하기

(나)의 2문단에서 ‘현대 과학과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 기존의 기준만으로 사회적 합의와 법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를 양산하게 되었다’라며 ‘이처럼 기존의 가치 기준과 제도가 무력해져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기 어려운 상황을 아포리아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을 통해 아포리아의 상황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다)의 1문단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예술품에도 저작권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 법적 기준이 미비하기 때문이다’라며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예술품의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을 통해 (나)에 언급된 현대 사회에서 발생한 아포리아 상황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7.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파악하기

<보기>에서 ‘법이상주의’는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권리를 중심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복잡한 사건이 있을 때, 법의 목적에 적합하게 법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의 철학적 근거와 기초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가)의 2문단에서 ‘저작권을 뒷받침하는 이론으로는 자연권 이론이 있다.’라고 한 것을 통해 자연권 이론이 저작권법의 근거와 기초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보기>를 (가)와 연결 지어 법이상주의에 따라 저작권의 철학적 근거인 자연권 이론을 중심으로 저작권법을 해석해야 함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A]에 나타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예술품을 생성하는 과정에 인간의 판단과 선택이 개입되므로, ~ 저작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예상 반론에 대해 저작권은 자연권 이론에 근거하여 인간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창작한 예술품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권리임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작문]

28.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2문단의 ‘무언극을 보고 나서, 공연 포스터의 ~ 문구가 떠올랐다’라는 것에 공연 포스터의 문구를 인용한

부분이 드러나 있다. 그리고 문구의 ‘말없이도 전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를 ‘나는 누군가와 대화할 때 ~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깨달음과 연결하여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9.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의 반영 여부 확인하기

3문단의 ‘본격적인 공연 연습에 ~ 훨씬 어려웠다’에서 공연 연습이 시작된 이후 표정 연습에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은 확인할 수 있으나, ‘다양한 감정을 ~ 여러 날 동안 연습했고’에서 공연 연습을 포기하고 싶었다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의 ‘국어 시간에 ~ 과제를 받았다’에서 무언극 공연을 하게 된 상황을,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 표정 연습의 기회로 삼아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에서 이를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2문단의 ‘배우들은 ~ 드러나는 것 같았다’에서 배우들의 연기에 대한 감상을, ‘나는 누군가와 대화할 때 ~ 사실을 깨달았다.’에서 자신의 비언어적 표현 방식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3문단의 ‘슬픔을 표현할 때 눈썹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좋은지, ~ 하나씩 익혀 나갔다.’에서 표정을 연습하면서 어떤 점을 고려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4문단의 ‘나의 연기에 ~ 자신감이 차올랐다.’에서 공연 중 친구들의 반응에서 느낀 감정을 제시하고, ‘내가 표정으로 표현한 감정이 친구들에게 온전히 가닿았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에서 공연 후의 소감을 덧붙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0. [출제의도] 조건에 따라 제목 작성하기

‘감정을 담은 표정, 말없이 전하는 내 마음의 편지’에는 ‘감정을 담은 표정’에 감정을 전달할 때 표정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드러나 있고, ‘표정’을 ‘편지’라고 한 것에 비유적 표현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고전소설]

[31 ~ 33] <출전> 작가 미상, 「목시룡전」

31.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황제가 한림을 불쌍하게 ~ 고향을 모셔오라’고 한 것을 통해, 황제가 시룡을 불쌍히 여겨 그의 품계를 올렸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2.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파악하기

㉠은 시룡이 시호에게 보내는 글로, ‘조정에는 소인이 가득’한 상황에 대한 정보와 자신의 심정을 전달하는 기능을 할 뿐, 시호가 꺾을 일을 보여 주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은 ‘나라의 일은 ~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시룡의 우려를 ‘마음은 항상 ~ 아이의 심정이다’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은 ‘약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듯하다’라는 추측의 표현을 통해 ‘전쟁 후에 백성들이 무수하게 병이 들어 죽’는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은 ‘조정에는 소인이 가득’하다는 시룡의 판단을, ㉡은 ‘약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듯하다’는 황제의 판단을 동일한 상대인 시호에게 전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은 ‘황용사에 가서 제를 올려라’라고 하는 황제의 명으로 시호를 조정에서 황용사로 이동시켜 사건이 전개되는 공간적 배경을 전환하는 서사적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3.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원수가 ‘꿈을 꾸니 법당에서 노승이 노래를 지어’ 불렀다는 것과 ‘한림이 꿈속의 일이 이러하’였다는 것에서 시룡과 시호가 같은 꿈을 꾸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하지만 꿈을 꾸 이후 시호가 시룡의 정체를 모

른 채 ‘스님은 무슨 까닭으로’ 눈물을 흘리냐고 묻고 시룡 또한 시호를 알아보지 못하고 ‘동생을 잃고 매일 한탄하고 있’다고 한 것을 통해 형제가 서로 살아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이 한 암시가 나타난 것은 맞지만 형제가 서로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징표로 여기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시호가 ‘형은 충성으로서 ~ 산소를 돌보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자, 시룡이 ‘황성에 올라’가고 시호는 ‘선산을 지키’는 것을 통해 형제가 충과 효를 실천하기 위해 이별함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시호가 역적인 엄승을 징치하며 ‘내 형을 모함하여 ~ 죽게 하였’다는 죄상을 언급한 것에서 개인적 원한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가달과 내통하여 ~ 망하게 하느냐’라고 죄상을 언급한 것에서 훼손된 국가의 질서를 회복하려는 의도가 드러남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황제가 ‘백성들이 ‘병이 들어 죽’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시호에게 ‘황용사에 가서 제를 올’리도록 하자 시호가 황용사로 가고, ‘제를 올리는 자리’에 시룡이 ‘함께 참석’하는 것을 통해 나라에 닥친 어려움이 형제를 한 공간에 모이게 하여 재회하도록 하는 계기가 됨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어찌 서로 ~ 형인 줄 알겠는가’를 통해 시호와 시룡이 서로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원수가 제를 마친 후 ~ 형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다는 것과 ‘한림도 동생을 ~ 눈물이 솟아’났다는 것을 통해 서로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 시련 속에서도 형제의 우애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고전시가 · 고전수필]

[34 ~ 38] <출전> 남석하, 「원유가」

홍세태, 「자경문」

34.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가)의 화자는 이윤과 강태공의 고사를 활용하여 자신이 ‘충신열사 후예’임을 강조하고, 급암과 노중련의 고사를 활용하여 자신이 충신임을 강조하고 있다. (나)의 글쓴이는 위나라 무공의 고사를 활용하여 자신을 경계하겠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5.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 이해하기

‘소년들’은 화자에게 ‘출세가’ 늦은 이유에 대해 묻는 인물로, 화자는 ‘소년들’에게 자신의 ‘풍운이 늦은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소년들’이 화자가 교훈을 전달하고자 하는 인물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자네’는 ‘소년들’이 화자를 부르는 말이므로, ‘자네’가 화자가 교훈을 전달하고자 하는 인물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화자는 ‘녹수청산 깊은 데로 골골이 들어’갔다고 하였는데 ‘슬피’ 우는 ‘두견’과 ‘님나드’는 ‘앵무공작’은 화자가 있는 자연이라는 공간의 분위기를 형성하므로 적절하다. ② 화자는 자신이 있는 곳을 ‘무릉도원’이라고 하며 풍경을 바라보는데 이때 ‘좋은 시구’와 ‘통소’는 풍경에 대한 화자의 감흥을 복돋는 역할을 하므로 적절하다. ④ 화자는 자신의 가슴 속에 ‘충효’가 있다고 하며 급암과 노중련을 언급하고 이들이 ‘직신’과 ‘의사’라며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화자는 ‘감군은 한 곡조로 태평주’를 빚었다고 하면서 주위의 ‘좋은 벗’과 술을 나눠 마시며 평화롭고 흥겨운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6.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하기

(나)에서 글쓴이는 ‘타고난 자질이 명칭하고 둔하지는 않았’다고 하며 ‘어린 사우를 얻’었거나 ‘제앙과 곤액을 만나 그 뜻을 꺾이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사람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문제의 원인이 자신의 타고난 자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있다는 생각을 보여 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나)에서 글쓴이가 '나는 다섯 살 때 책을 읽을 줄 알았고, 자라면서 남을 좇아 배웠지만 겨우 몇 권에 그쳤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나)에서 글쓴이는 '경서'에 대해 '만약 이것을 미루어 확장해서 육예의 근본에서 구했다라면 얻은 바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며 경서를 읽을 때 좀 더 깊이 공부해 보지 못한 데 따른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나)에서 글쓴이는 '기술은 삼가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고 한 맹자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 보며 '설령 정말로 능하다 해도 또한 하나의 앵무새가 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매번 이 생각만 하면 속으로 홀로 부끄러웠다고 하며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나)에서 글쓴이는 '저녁에 죽기 전까지는 도를 듣는 날이라, 애오라지 이를 써서 벽에다 걸고 스스로에게 경계로 삼는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37.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가)에서 화자는 충신인 '이윤'과 '여상'을 떠올리며 '나도 또한 그'라고 여기고 자신에 대해 '충신열사 후예'라고 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 '이를 본 사람들'은 글쓴이가 쓴 시를 보고 '잘한다'고 하고 글쓴이를 '시인이라고 지목'함으로써 시에 대한 글쓴이의 성취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8.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나)에서 글쓴이는 사람들이 자신을 '시인'이라고 지목하자 '이 같은 이름을 얻고부터는 사양할 길이 없었다'고 하며 어쩔 수 없이 시인이라는 이름을 얻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중년에 어려움에 처하고 궁핍을 만나 이리저리 내몰리다 보니 마침내 배움을 그 만두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에 글쓴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배움'일 뿐, '시인'으로서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글쓴이가 원하던 바를 이루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가)에서 화자는 '성상'이 '하늘 같은 궁궐 안에 이 노래 들으시면'이라고 하며 자신이 상상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 이때 화자는 임금이 자신에 대해 '초야의 숨은 신하 이날에야 만났'다고 여긴다고 하였는데, 이는 임금에게 신임을 얻음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상황을 상상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므로 적절하다. ② (나)에서 글쓴이는 '학문'을 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음을 드러내고 '평소에 이 같은 뜻이 있었지만 이를 잃'었다고 하며 현실과 이상의 간극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를 잃'었다는 것을 알게 하면 '슬퍼해 줄 것'이라고 하며 자신의 포부를 이루지 못한 데 따른 애석함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나)에서 글쓴이는 '남들은 모르고 나만 홀로 아는 것'을 '평생 유감스럽게 여기는 것'이라고 하며 자신의 지난날을 돌아보고, '재주를 씀이 넓지 못했'다고 하며 자신의 부족한 점을 성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가)에서 화자는 '공명을 크게 닦고 벼슬 그만 아뢴 후' 벼들과 함께 노닐며 '천하 만사'가 '한바탕 웃음'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화자가 공명을 이루고 한가롭게 지내고 싶어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나)에서 글쓴이는 '대저 사람이 되어 배움을 알지 못한다면 어찌 사람 노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며 배움의 실천에 대해 떠올리고 있다. 또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녁에 죽기 전까지는 도를 듣는 날이라, 애오라지 이를 써서 벽에다 걸고 스스로에게 경계로

삼는다'고 하며 배움을 여생에 실천하려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현대소설]

[39~42] <출전> 하근찬, 「조상의 문집」

39.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송 노인이 증조부를 가깝다고 언급하는 상황에 증조부가 '멀지 않다니 말도 안 된다'는 명준의 판단과 "증조부"라는 말 자체가 명준은 벌써 멀고 서먹한 것으로 들리는 것'이라는 명준의 심리를 이야기 밖 서술자가 서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0.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이해하기

㉠의 '조판비가 얼마나 비싼지 알기나 해요?', '표지는 읍세트로~비싸게 먹히는데요.' 등 명준은 자신만 알고 상대방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문집을 만드는 데 돈이 많이 든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의 '우리 조부가 어떤 분인지~나는 알어.'에서 송 노인은 자신만 알고 명준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조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1. [출제의도] 인물의 반응 파악하기

㉢의 '이맛살을 약간 찌푸리며', '고개를 돌린다'에서 보듯이 송 노인이 기분이 상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돈이 좀 들더라도 좌우간 만들어야겠어.'에서 보듯이 문집을 만들고자 하는 의욕이 여전히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은 '패썩하기 짝이 없다'에서 보듯이 '난 모르겠어요.'라는 명준의 말을 몹시 언짢게 여기는 송 노인의 심리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는 '주둥이를 삐죽 빼문다'에서 보듯이 입술을 내밀고 송 노인의 말에 대꾸하지 않으며 못마땅해하는 명준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은 '아들의 입에서~없다는 표정이다.'에서 보듯이 명준이 서슴없이 하는 말을 듣고, 예상치 못한 명준의 반응에 놀라는 송 노인의 심리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은 '문집을 아무렇게나~넘겨본다'에서 보듯이 문집을 되는 대로 가볍게 넘겨보는 모습과 '이렇게 한문투성인~할 것 같아요?'라는 명준의 발언을 통해 문집을 성의 없이 살펴보는 명준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42.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한문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는 아직 많'다며 '죽보도 다 한문으로 된 거'라고 송 노인이 말하는 데에서 명준과 달리 한문으로 된 책도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문집과 같은 전통적 가치에 대한 송 노인의 관점은 확인할 수 있으나 송 노인이 전통적 가치관과 새로운 가치관의 공존을 꾀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증조부를 '멀지도 않'다고 말하며 조상을 가깝게 느끼는 송 노인과 달리 증조부가 '멀지도 않다니 말도 안 된다'며 조상을 멀게 느끼는 명준의 생각에서 조상을 멀고 가깝게 느끼는 정도에 대한 세대 간의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명준이 '책을 만들어'도 '읽지도 못'한다며 증조부의 문집이 '무슨 가치가 있'냐고 반문하는 데에서, 문집을 읽을 수 있는지 여부라는 실용성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송 노인이 '돈이 좀 들더라도 좌우간 만들어야겠'다며 조부의 문집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데에서, 송 노인이 경제적 측면인 돈 문제보다 전통적 가치인 문집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송 노인이 손주인 윤국에게 '나중에' '읽어보'라고 문집을 읽도록 권하며 '우리 집

안의 가보'라고 하는 데에서, 조상이 남긴 가치 있는 문집을 다음 세대인 윤국에게 전하려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현대시]

[43~45] <출전> 오세영, 「보석 1」

김기택, 「얼굴」

43.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나)의 3연의 '묻혀라 화석에.'에서 도치의 방식으로 '화석'에 주목하는 화자의 태도가, (다)의 1연의 '아까워하며 조금씩 조금씩 더듬어나갔다', '차갑고 무뎡뎡하고 무엇에도 무관심한 그 물체를', '내 얼굴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음직한 그 튼튼한 폐허를'에서 도치의 방식으로 '그 물체'와 '튼튼한 폐허'에 주목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4.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하기

(나)에서 '지상의 별들'이 '불에 타서 소멸을 선택'한다는 것에서, 시적 대상인 '지상의 별들'이 선택한 바는 '소멸'이며 '소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불에 타서'라는 ㉠의 상황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다)에서 '오랫동안 없어졌다가 갑자기 뒤집어쓴 얼굴이 어색하'였다는 것에서 시적 화자가 일상에서 벗어났다가 돌아와 어색함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겨우 눈동자를 되찾아' '숫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서둘러' 했다는 것에서 시적 화자가 일상에 적응하려고 함을 알 수 있다. 이때 '숫자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라는 ㉡를 그러한 과정에서 드러나는 시적 화자의 반응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4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다)의 3연에서 '햇빛'이 '살로 변화'였다는 것에서 비현실적인 상상이 드러나며, 이는 '곧 얼굴이 되었다'는 변화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연에서 '얼굴'이 '해골의 껍데기에 붙'으며 '얹지않'고, '잠시 동안만 피다 지는' 것이라는 부분을 볼 때 '얼굴'의 의미가 생명력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햇빛'이 '살로 변화'는 것이 생명력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① (나)의 3연에서 '소멸을 선택하는' '별들'에게 '화석'에 '묻혀라'라고 한 뒤 '영원히 죽는 것'이 '죽음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에서 '화석'에 '묻'히는 것이 '영원히 죽는 것'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영원히 죽는 것'이라는 시구에 영원히 남는다는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다)의 1연에서 '폐허'가 '튼튼'하다고 하며, '내 얼굴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음직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폐허'에 오랜 시간 그 형태를 유지하며 지속된다는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나)의 1연에서 '화석 속엔 한 마리' '새가 난다'라는 것에서 '한 마리' '새'의 '난다'는 행위와 '화석 속'을 연결하여 현실에서 불가능한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고, (다)의 1연에서 '얼굴'을 '손으로 덮'자 '해골'이 '만져졌다'고 하며 '얼굴'을 '손으로 덮'는 행위와 '해골'을 연결하여 비현실적인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나)의 1연에서 '새'가 '결코 지상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에서 '새'가 '지상'에 '결코' 닿지 않는다는 의미가 드러남으로써 '새'와 '지상'이 대비되고 있고, (다)의 2연에서 '얼굴'이 '눈물 흘리'고 '해골'이 '슬퍼하는 일 없'다는 것에서 '얼굴'과 '해골'이 대비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나)의 2연의 '취라기 지층 어느 하늘'은 '취라기 지층' 안에 '하늘'이 있다는 표현으로, '지층' 안에 있을 수 없는 공간인 '하늘'이 '지층' 안에 있음을 의미하고 있어 공간을 비현실적으로 재구성하는 인식이 드러난다. (다)의 2연에서 '뻗어 있는 긴 시간'을 '구멍 뚫린' 눈으

로 ‘보고 있’다는 표현은 볼 수 없는 추상적 대상인 ‘시간’을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시간을 비현실적으로 재구성하는 인식이 드러난다. 따라서 적절하다.